



# 2022년 증권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

---

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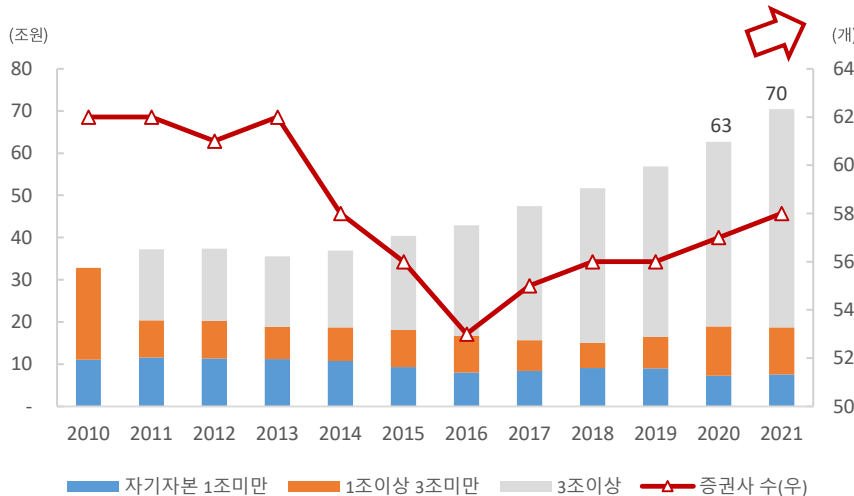
# 1

## 증권산업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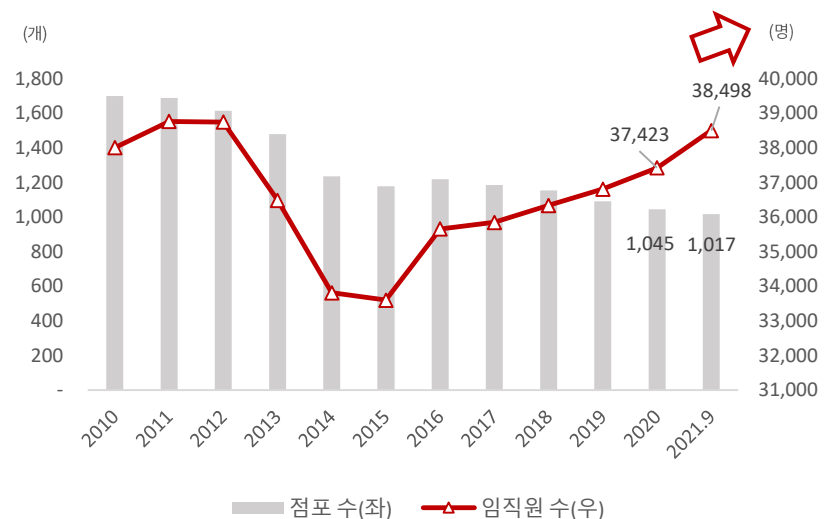
# 일반현황

- 2021년 실적 증가로 증권업 자기자본은 지속 증가했으며, ICT 인력채용 확대로 임직원 수도 증가
  - › '21년 9월 증권산업 자기자본은 70조원으로 '20년말(63조원) 대비 11.1% 증가
  - › 점포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ICT 인력채용 확대로 임직원 수는 전년 대비 2.9% 증가
- 2022년 디지털화로 점포 수는 감소할 전망이며, 신규 증권사 진출로 경쟁이 확대될 전망
  - › 비대면 영업 증가, 핀테크 서비스의 저변 확대로 지점 점포망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비용 효율성이 강조될 전망

국내 증권회사 수 및 규모별 자기자본 추이



증권회사 점포 수 및 임직원 수



주 : 외국계 제외  
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, 자본시장연구원 원내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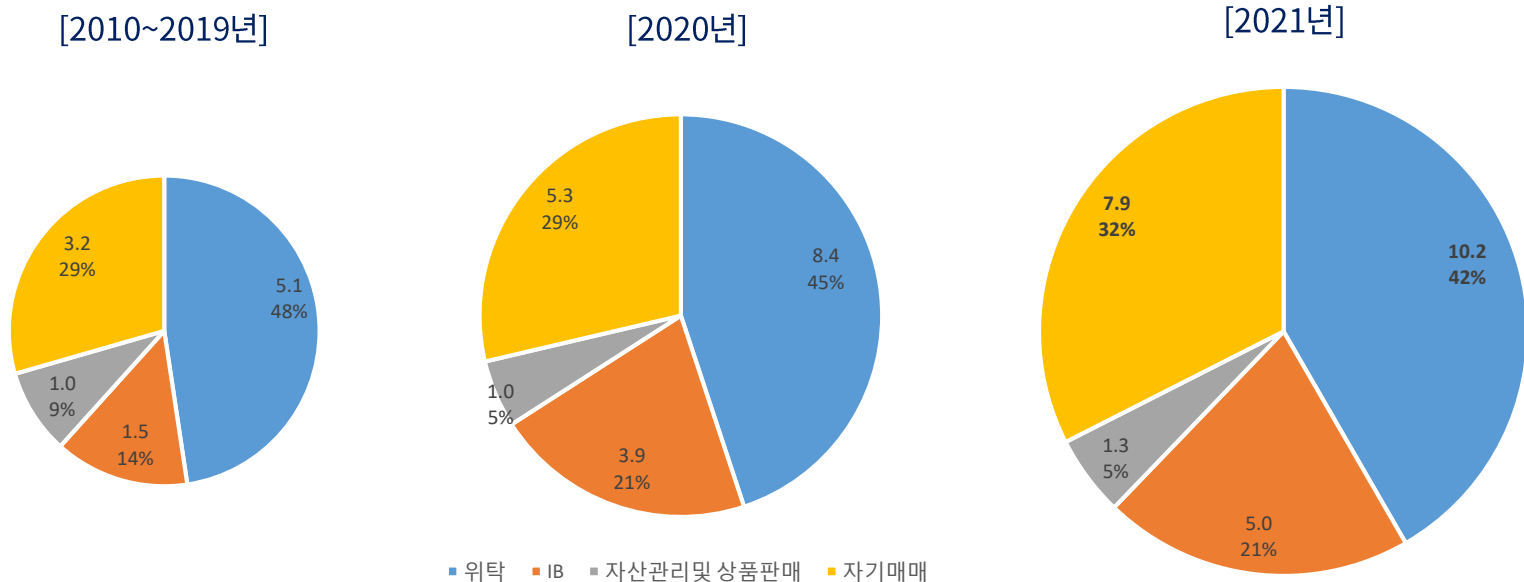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

# 수익성

## ○ 2021년 국내 증권회사는 위탁매매, 자기매매 실적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익 달성

- › 증권업 순영업수익 규모: 10.8조('10~'19) → 18.6조('20) → 24.4조('21) (전년 대비 30.8% 증가)
- › 2021년 지속적인 증시 저변 확대로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달성
  - '20년 대비 자기매매 2.6조(48%), 위탁매매 1.8조(21%), IB 1.1조(28%), 자산관리·상품판매 0.3조(28%) 성장
- › 최근 IB부문의 고속 성장으로 위탁매매, 자기매매, 투자은행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실현

국내 증권회사 부문별 순영업수익 규모(조원) 및 비중(%)



주 : 2021년은 4사분기 결산 미완료에 따라 최근 4분기 재무자료를 합산  
자료: 자본시장연구원 원내자료

# 수익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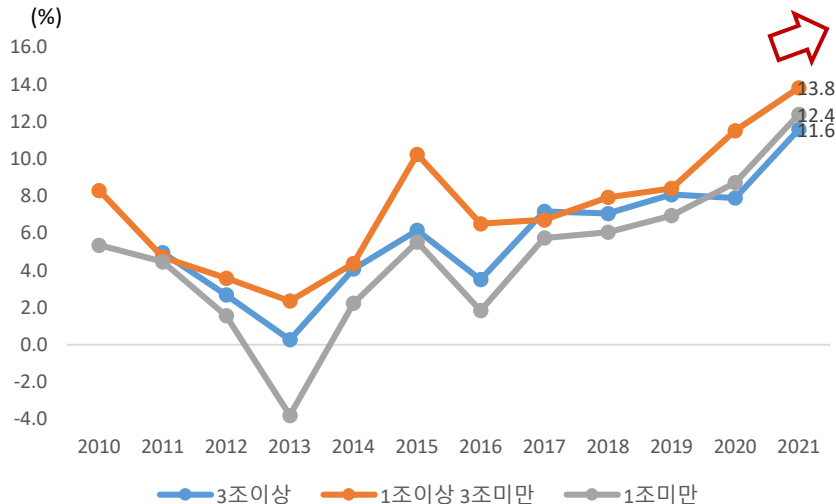
## 2021년 국내 증권산업 ROE는 자기매매, 위탁매매 실적 호조에 힘입어 지속 상승

- › '21년말 국내 증권산업 ROE는 12.3%를 기록했으며 중형사 ROE는 13.8%로 높은 수익성을 실현
- › '21년말 증권산업 주가순이익비율(PER)은 4.4, 시가배당률은 3.8%로 증권산업 밸류에이션 매력에 부각
  - 동기간 코스피 전체 주가순이익비율(PER)은 13.8, 시가배당률은 1.9%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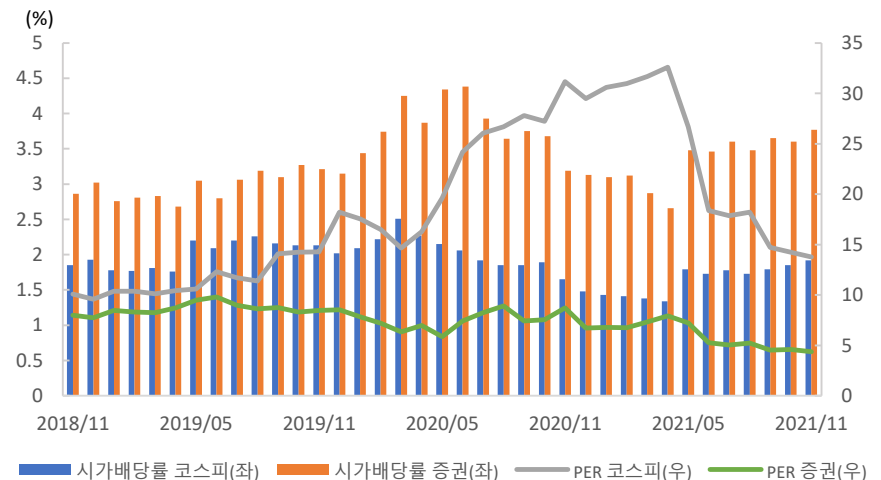
## 2022년 긴축 정책으로 거래대금 감소가 예상되나 해외거래 증가, 경기회복 기대로 양호한 수익을 전망

- › (위탁 · 자기매매) 금리 인상기 거래위축은 부정적이나 해외거래 증가, 팬데믹 정상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는 긍정적
- › (IB) 늘어난 자기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, 적극적인 위험 인수를 통해 IB 부문 이익 기여도는 확대될 전망

국내 증권회사 규모별 ROE 추이



국내 증권회사 시가배당률 및 PER 추이



# 위탁매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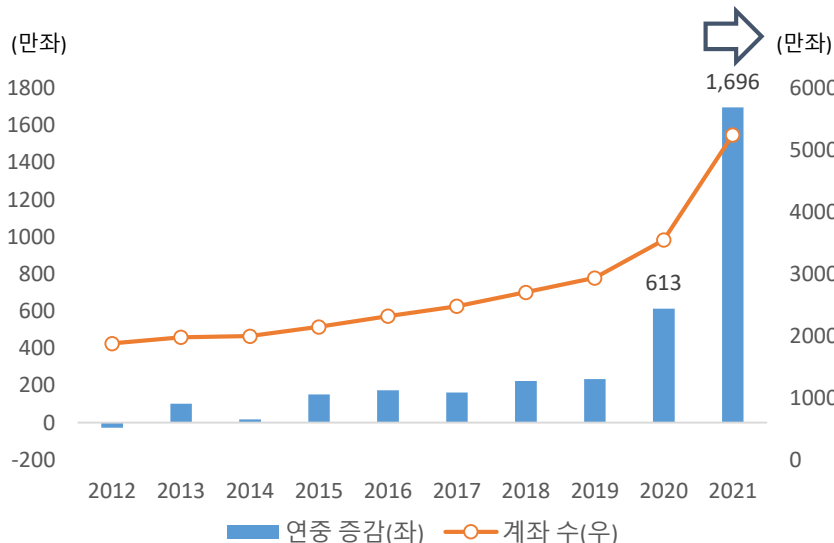
## 2021년 개인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로 위탁매매 수익 증가율은 다소 둔화

- ▶ 역대 최고의 IPO 실적 등에 힘입어 2021년 9월말 주식 활동계좌 수는 5,245만 계좌로 전년말 대비 47.8% 증가
- ▶ 개인 참여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위탁매매 수익은 전년 대비 1.3조원(23.6%)증가한 6.8조원을 기록

## 2022년 증시 변동성 확대, 수수료 경쟁은 부정적이나 해외거래 증가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익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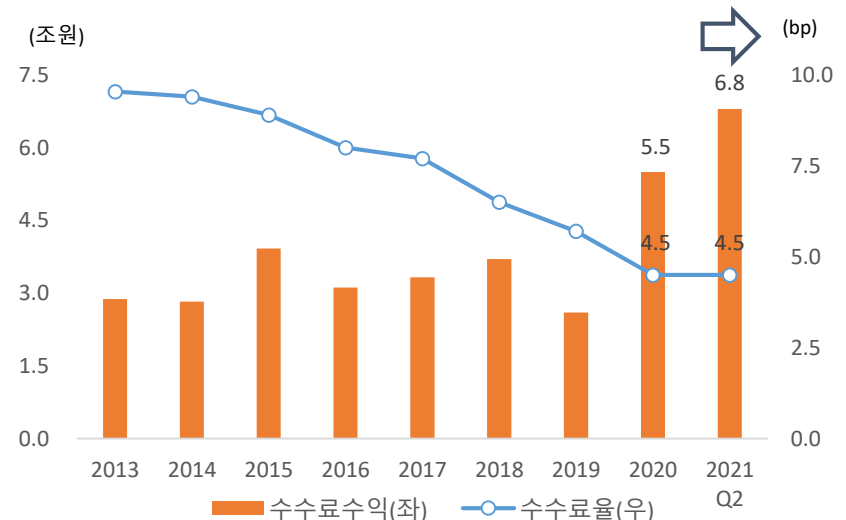
- ▶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의 모바일 주식 위탁매매 서비스 출시로 수수료 경쟁이 심화될 전망
- ▶ 해외 소수점거래 확대 등 해외 직접투자 수요 증가는 위탁매매 수익에 긍정적 요인

주식거래 활동계좌 수 추이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및 수수료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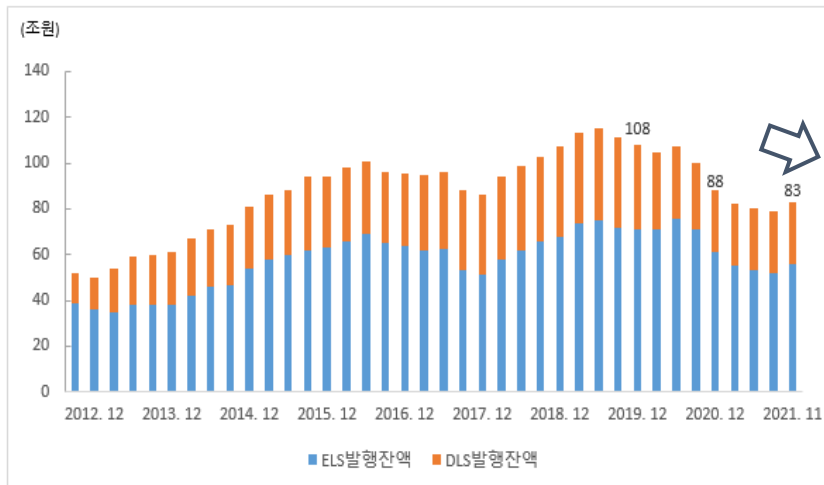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거래소

# ELS·DLS 및 펀드 판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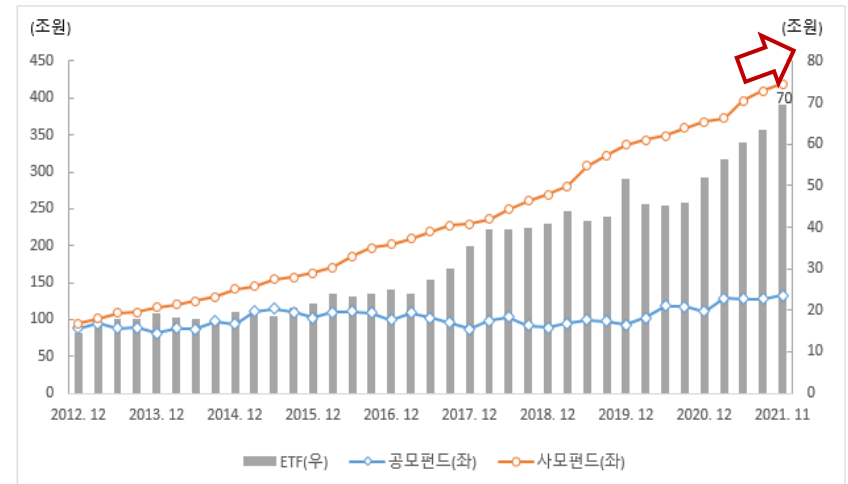
- 2021년 고난도 상품 규제 강화로 ELS·DLS 발행은 줄었으며 ETF 중심으로 펀드 판매 증가
  - ▶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(녹취, 숙려 제도 등) 강화로 ELS·DLS 발행은 위축(잔액: 108조원('19년말) → 83조원('21년말))
  - ▶ 개인의 직접투자 증가로 공모펀드 판매는 둔화, 저금리 기조 속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ETF, 사모펀드 판매는 증가
- 2022년 변동성 증가로 ELS·DLS 발행 및 펀드 판매는 위축될 전망이며 ETF 판매는 더욱 성장할 전망
  - ▶ 국내외 긴축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ELS·DLS 발행은 위축될 전망
  - ▶ 개인 참여 증가로 공모펀드 판매는 위축될 전망이며, 퇴직연금 및 비대면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ETF는 지속 성장 전망

ELS·DLS 발행잔액 추이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유형별 펀드 판매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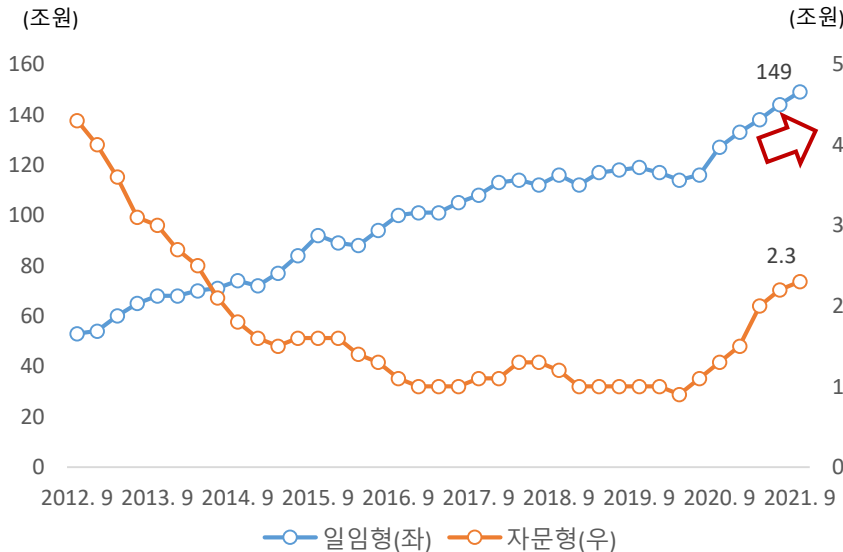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투자협회(증권회사 대상)

# 랩어카운트, CM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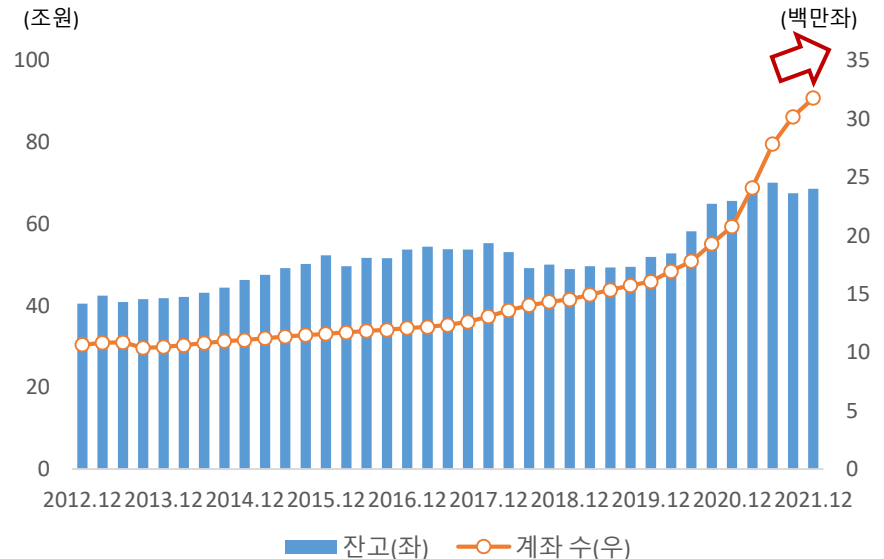
- 2021년 개인의 증시 참여 확대 및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랩어카운트와 CMA 잔고는 증가
  - › 1:1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일임형랩 잔고가 빠르게 증가(약 20조원)했으며, 자문형랩 잔고도 가파른 증가세로 전환
- 2022년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랩어카운트와 CMA 잔고 모두 꾸준히 증가할 전망
  - › 로보어드바이저 등 비대면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랩어카운트의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 유지될 전망

랩어카운트 잔고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CMA 잔고 및 계좌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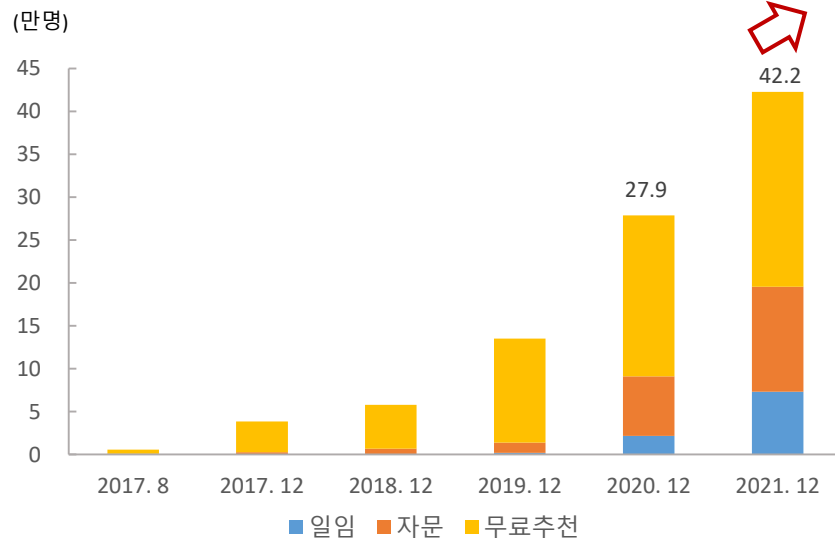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



# 로보어드바이저(R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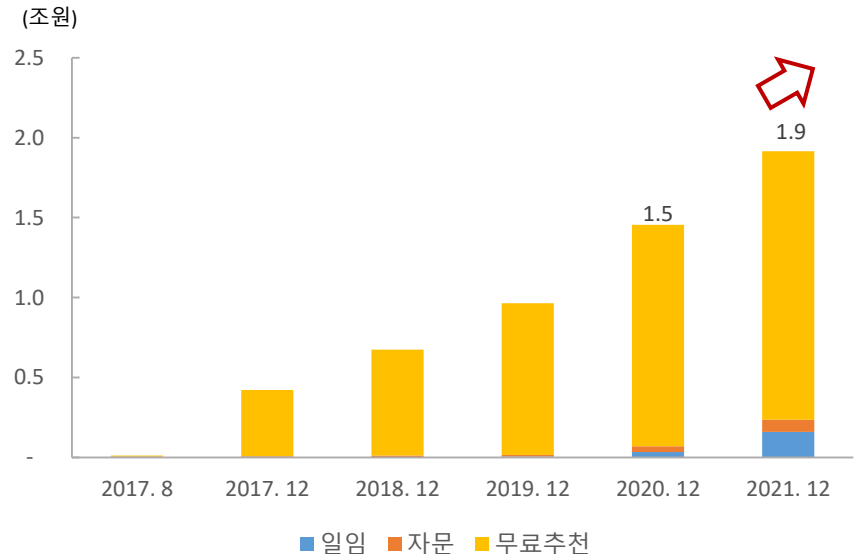
- 2021년 AI, 빅데이터 기술 보급 확대 등 자동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RA 이용이 지속 증가
  - › 2021년말 RA 가입자 수는 42.2만명으로 전년 대비 51% 증가, 가입금액은 1.9조원으로 전년 대비 30% 증가
- 2022년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비대면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RA 가입자 수, 가입금액 모두 빠르게 증가할 전망
  - › 마이데이터,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등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유료 기반 RA 가입(예: 일임형 RA)이 증가할 전망

로보어드바이저 가입자 수



자료: 코스콤

로보어드바이저 가입금액



자료: 코스콤

# IPO 및 유상증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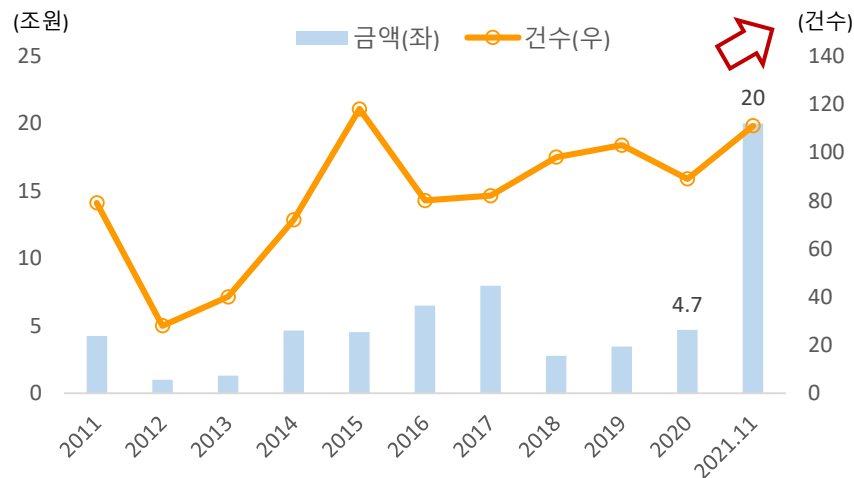
## ○ 2021년 대형 딜(Deal) 성사 및 개인참여 증가로 IPO, 유상증자 규모는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

- › 대형 공모주(예: SKIET, 카카오뱅크, 크래프톤)의 자금조달 수요 및 개인의 공모주 투자 참여 증가로 IPO 시장이 활황
- ›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대기업 중심으로 유상증자 발행규모가 증가

## ○ 2022년 LG엔솔 등 대형 딜(Deal) 증가로 IPO, 유상증자 규모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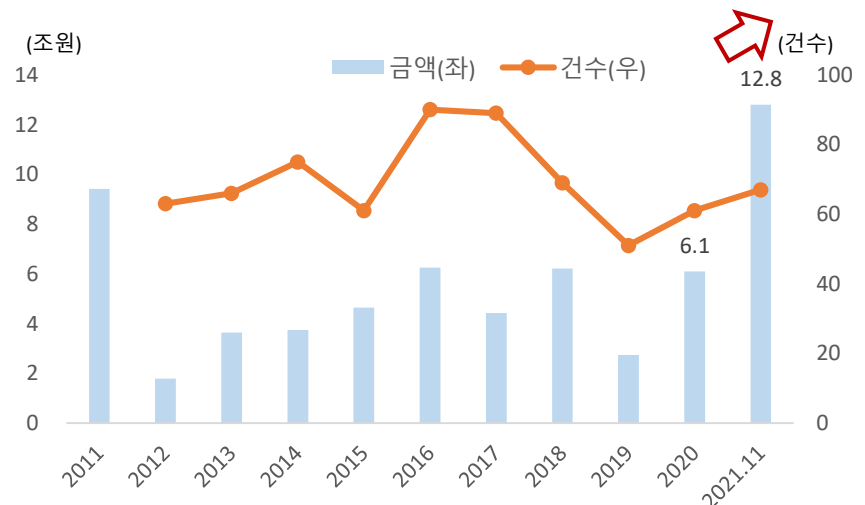
- › 빠른 산업구조 변화로 신성장산업에 있는 대기업 계열 및 유니콘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조달 수요 기대
- › 금리상승,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증가, 투자자 심리 하락 등은 위험 요인

국내 IPO 시장 추이



자료: KIND, 금융감독원

국내 유상증자 시장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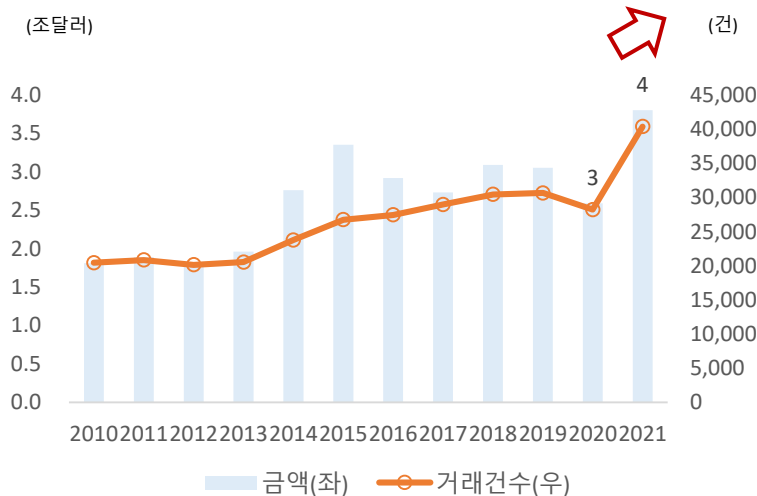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KIND, 금융감독원

# 글로벌 M&A 시장

- 2021년 글로벌 M&A 시장은 저금리, 주가상승의 우호적 환경 속에 역대 최고 규모 기록
  - › 초저금리, 풍부한 유동성 및 가파른 주가 상승 등 우호적인 M&A 환경 조성
  - › PEF 및 SPAC의 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(SPAC 주도 인수합병이 전체 거래규모의 10%)
- 2022년 글로벌 M&A 시장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  - › 기술, 미디어, 헬스케어 산업 중심으로 M&A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

글로벌 M&A 시장 추이



2021년 주요 M&A 거래

(단위: 조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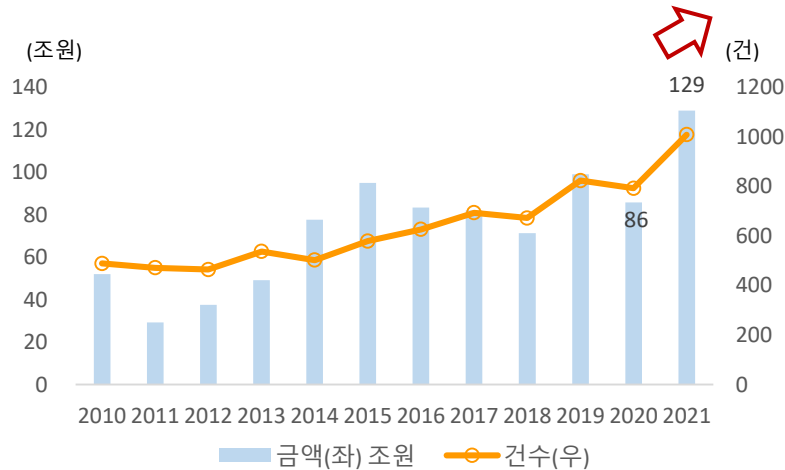
인수대상	인수기업	매도단	공시가
Constellation Brands	Monster Bev.		5.5
Magallanes	Discover	AT&T	4.3
Medline Ind.	GIC, Carlyle Group	Carlyle Global Part.	3.4
Afterpay Ltd.	Block Inc.		2.7
Cerner	Oracle		2.4

주 : 완결, 미결 기준  
자료 : Bloomberg

# 국내 M&A 시장

- 2021년 국내 M&A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M&A 시장이 형성
  - › 국내 대기업의 M&A 활동 증가로 거래건수 및 거래규모 기준 역대 최고 수준 기록
  - › PEF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PEF가 국내 M&A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잡음
- 2022년 국내 주요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 및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M&A 활동이 확대될 전망
  - › AI, 바이오, 배터리, 로봇, 자율주행, 친환경, 핀테크, 메타버스 등 미래 기술 확보 중심의 M&A 기대
  - ›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(domestic)와 더불어 국경간(cross-border) M&A 확대 예상

국내 M&A 시장 추이



2021년 주요 M&A 거래

(단위: 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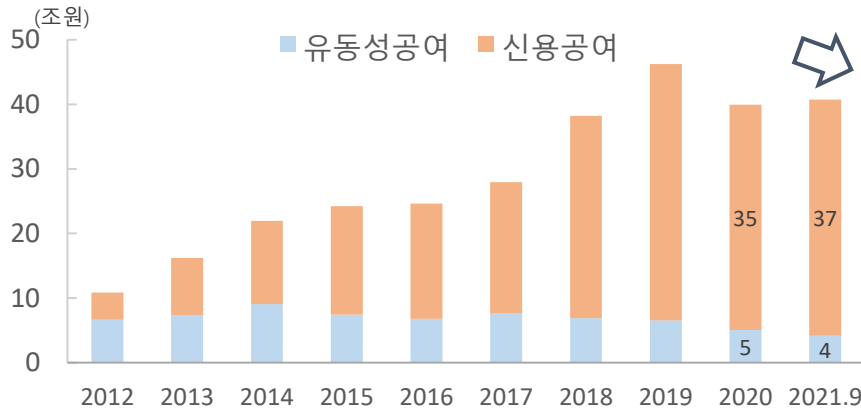
인수대상	인수기업	매도단	공시가
인텔 NAND 사업부문	SK하이닉스	인텔	7.0
아코디아 골프	포트리스	MBK 파트너스	5.6
아폴로코리아	이마트	이베이	3.1
크레이튼	디엘		2.4
레오나도	넷마블		2.2

주 : 완결, 미결 기준  
자료: Bloomberg

# 채무보증 및 해외 대체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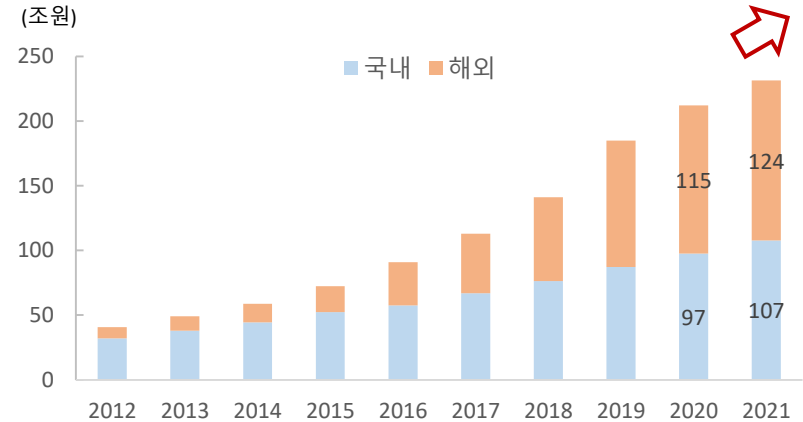
- 2021년 건전성 규제 영향으로 채무보증은 성장이 둔화되었으며, 해외 대체투자 증가세도 둔화
  - › 부동산시장 호황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규제 강화 영향으로 채무보증 규모는 성장이 둔화
  - › 해외 대체투자는 코로나 이슈와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위험관리 강화로 성장세가 둔화
- 2022년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채무보증은 감소할 전망이며, 기관 수요 증가로 해외 대체투자는 증가할 전망
  - ›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가능성과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대체투자 감독강화가 부정적 요인
  - › 기관투자자의 해외 대체투자 확대 기조가 있으나 증권사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익스포저를 확대할 전망

국내 증권사 채무보증 추이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국내외 대체투자펀드 설정액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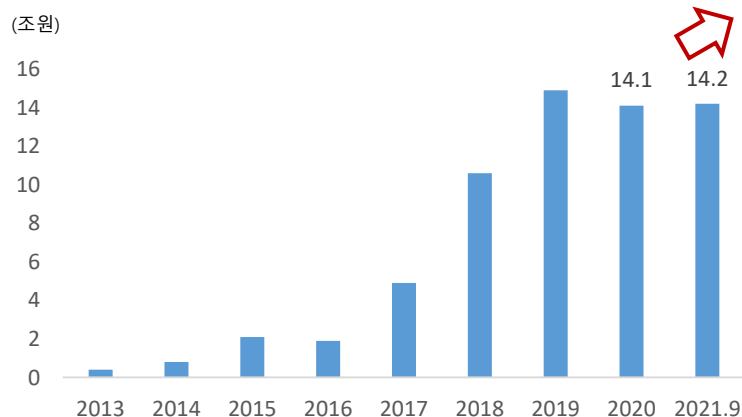


주 :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의 합  
자료: 금융투자협회

# 기업신용공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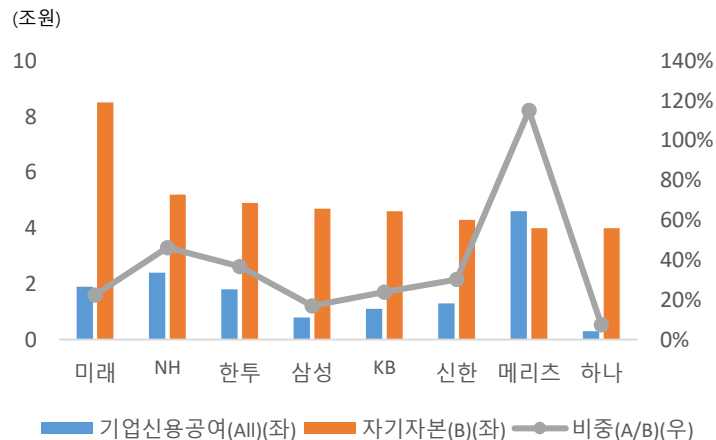
-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신용도 악화와 채무상환유예 영향으로 기업신용공여는 성장이 정체
  - › '21년 9월 기업신용공여 14.2조원과 자기자본 대비 35.3% 수준은 전년 대비 유사 수준
- 2022년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기대, 기업차입금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신용공여는 성장세 회복이 예상
  - › 일부 증권사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시, 기업신용공여 전체 규모의 추가적 확대를 예상

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업신용공여잔액 ('21.9)



자료: 금융감독원

종합금융투자사업자별 기업신용공여 ('21.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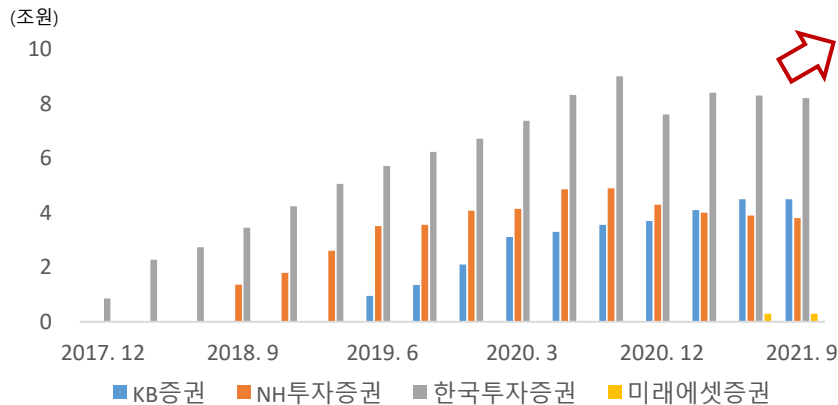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감독원

# 초대형 IB와 발행어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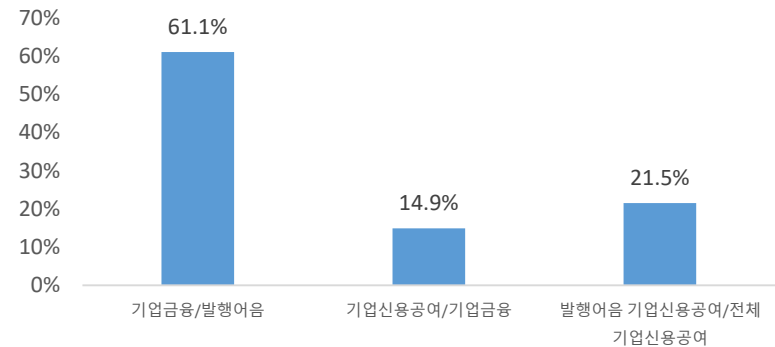
- 2021년 기업신용공여 성장 둔화, 위험자산 투자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발행어음 규모는 성장이 둔화
  - › 기업신용공여 정체 영향으로 4개 초대형 IB 발행어음 잔액은 전년대비 3.7% 감소한 16.8조원 기록
  - › 발행어음 대비 50% 기업금융 실적을 초과하고 있으나 기업신용공여 연계성이 낮은 상황
- 2022년 고객의 안전자산 수요 증가, 경기회복에 따른 자금조달 수요 증가로 발행어음은 증가할 전망
  - ›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, 신규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업무 확대는 발행어음 성장에 긍정적 요인

초대형 IB 발행어음 현황 ('21.9)



주 : 발행어음 인가시기는 한투 '17.11, NH '18.5, KB '19.5, 미래 '21.5  
 자료: 금융투자협회

초대형 IB 4사의 발행어음과 기업신용공여 ('21.6)



주 : 초대형 IB 4사 합산 자료(한투, NH, KB, 미래)  
 자료: 금융감독원

# 증권산업: 해외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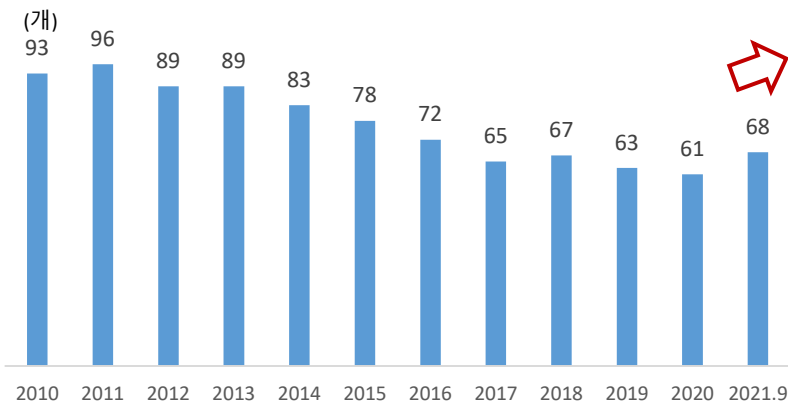
## ○ 2021년 국내 증권사의 해외 점포 및 수익은 안정적 성장세 유지

- › 국내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해외자산 투자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해외사업 수익 향상
- › 국내 증권사 해외진출 지역의 리테일 고객 주식투자도 크게 증가

## ○ 2022년 국내 증권사의 해외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

- ›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및 자산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증권사 해외진출 유인 증가
- › 증권사 해외법인의 현지화 및 M&A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

국내 증권사 해외점포 추이



주 : 현지법인, 지점, 사무소 포함  
자료: 금융중심지지원센터

지역별 증권사 해외점포 현황(2021.9)

	아시아							미국	기타
	중국	홍콩	인도네시아	베트남	싱가포르	일본	기타		
현지법인	4	8	9	7	6		7	9	4
사무소	9			2		2			1
총 점포	13	8	9	9	6	2	7	9	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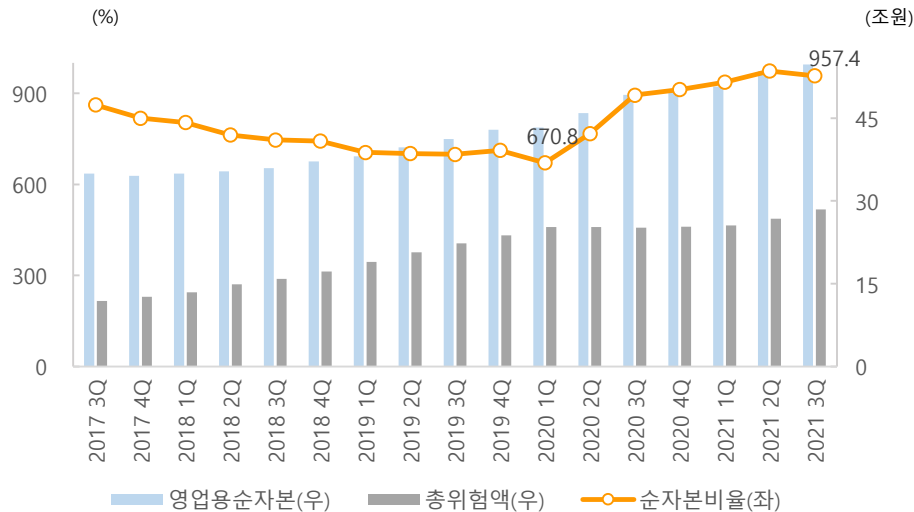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중심지지원센터



# 건전성 및 유동성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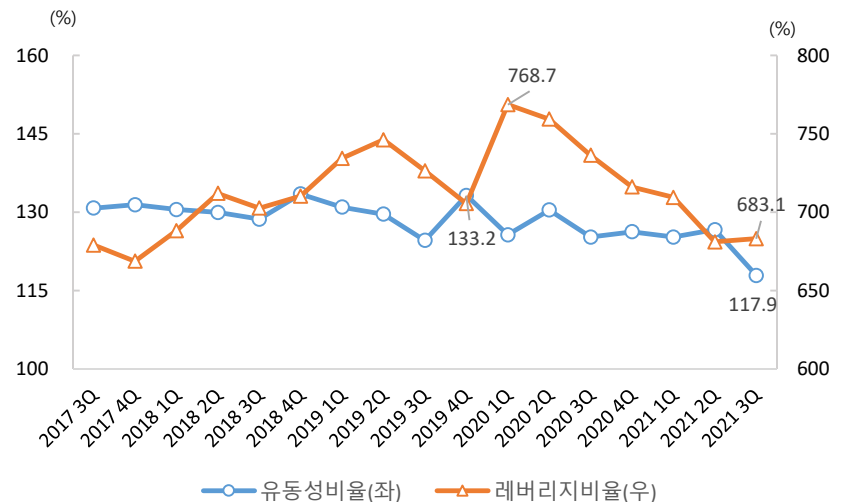
- 2021년 수익성 증가로 건전성 지표는 개선되었으나,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유동성 비율은 다소 하락
  - › 자본력 확충과 선제적 위험관리로 인해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은 매우 양호한 자본적정성을 유지
  - › 유동성비율은 최근 4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당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- 2022년 금리상승에 따른 시장하락과 경기둔화에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
  - › 증권사 개별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등을 통해 내부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

국내 증권산업 순자본비율 추이



주 : 순자본비율은  $100 \times (\text{영업용순자본} - \text{총위험액}) / \text{필요유지자기자본}$   
 자료: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국내 증권산업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추이



주 :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기준  $100 \times \text{유동성자산} / \text{유동성부채}$ ,  
 레버리지비율은  $100 \times \text{조정총자산} / \text{조정총자본}$   
 자료: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# 2

## 증권산업 이슈 및 과제 - T.I.G.E.R



# Transformation – 디지털금융 혁신, 산업 대전환 지원

## ○ 마이데이터, 마이페이먼트 등 혁신 핀테크 서비스 확대

- ›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등 혁신 금융서비스 확대
- › 전금법 개정시 마이페이먼트를 통해 예적금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머니무브 가속화
  -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('22.7), 중개형 ISA 활성화로 은행 예적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 가속화
- ›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진출 및 증권회사와 경쟁 확대

## ○ 창업 – 성장 – 회수 단계에서 혁신벤처기업 자금지원 강화

- ›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리서치 역량 강화 및 초기 투자업무 확대(예: 엑셀러레이터 경영 등)
- › BDC, 사모부채펀드, 고수익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
- › IPO & M&A 활성화를 위한 유인부합적 제도 개선

## ○ 가상자산 / NFT 시장 관심 증가 및 이용자 보호 강화

- › MZ 세대 중심으로 부동산, 미술품, IP에 대한 조각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증권사의 가상자산 신규 업무 추진을 검토
- › 가상자산 공시 및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, 매매·청산결제·예탁 인프라 개선을 통한 이용자보호 강화

# Intangible Asset – 무형자산 발굴 및 투자 활성화

## ○ 무형자산 평가인프라 개선

- ›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
- › IP 전문기술평가기관과 제휴를 통해 우수한 무형자산을 보유한 비상장기업 리서치 역량을 강화

## ○ IP(지식재산권) 금융 활성화

- › IP 전용 투자펀드, IP 수익증권발행신탁 활성화 등 추진
- › IP 보유 및 보증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개선, IP 특화 거래소 육성 등을 통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 유인 제시

## ○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

- › 매출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비상장거래 활성화 추진
- › 증권회사 내부주문집행 역량 제고를 통해 전문투자자 중심 IP투자 활성화 유도

# Giant & Globalization – 초대형IB 성장 & 해외진출

## ○ 초대형IB의 건전한 성장 지원

- › 초대형IB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진입(예: 3/4/8조원) 및 건전성 규제 개선 논의
- › 내부주문집행, IMA(종합투자계좌)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초대형IB의 건전한 성장 환경 마련

## ○ 해외진출 활성화

- › 외국환거래법제 등 외환시장 제도 개선, 건전성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해외투자 활성화 유인 제시
- › 국민연금기금, KIC 등과 제휴를 통해 해외 금융상품 중개·주선 업무 확대

# ESG – 기업 ESG 경영 촉진, 증권업 ESG 경영 강화

## ○ ESG 평가·공시·회계 인프라 구축

- › 국제적 표준, 한국 특수성을 고려한 ESG 평가 인프라 구축
- ›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ESG 공시 및 회계 투명성 가이드라인 제시

## ○ ESG 연계 금융상품 확대

- › ESG 성과에 연동한 자금지원 확대(예: 그린본드, ESG 성과연계채권, 사회적채권 등)
- › ESG 특화 공모펀드, ETF 등 출시 확대
- › 증권사의 배출권시장 참여 확대, 배출권선물 및 관련 상품 시장의 건전한 정착 유도

## ○ 금융투자회사의 ESG 경영 강화

- › ESG 지배구조 개선
- › ESG 연계 KPI 반영 등

# Risk Management – 증권업 위험관리 강화

## ○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강화

- ›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, 보유채권 포트폴리오의 손실 위험 증가
- › 국채선물, KOFR선물, IRS/CRS 등 금리파생상품을 통해 채권 포트폴리오 듀레이션 축소 전략 필요

## ○ 부동산PF 채무보증 위험관리 강화

- ›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PF 채무보증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
- › 충당금 적립 강화, 부동산PF 익스포저 축소 등 선제적 위험관리 필요

## ○ 글로벌 긴축 및 경기 둔화에 따른 해외 대체투자자산 위험관리 강화

- › 글로벌 긴축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해외 부동산,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
- › 신흥국 대체투자 자산 등 고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유동성 자산 비중 확대

3









종합



# 2022년 사업부문별 증권업 전망

- (위탁매매) 글로벌 긴축 및 증시 변동성 확대로 전년 대비 수익성이 소폭 둔화될 전망
- (투자은행) 경기회복에 따른 자금조달수요 증가,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
- (자산관리) 퇴직연금 및 비대면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
- (자기매매)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 수익 둔화, ELS·DLS 발행둔화 지속으로 자기매매 수익은 위축될 전망

사업부문별 증권업 전망

사업부문	2021년	2022년
위탁매매		
투자은행		
자산관리		
자기매매		

# 2022년 증권산업 이슈 및 과제 – T.I.G.E.R



## ○ Transformation – 디지털금융 혁신, 산업 대전환 지원

- › 혁신 핀테크 서비스 확대, 혁신벤처기업 자금지원 강화, 가상자산 관심 증가

## ○ Intangible Asset – 무형자산 발굴 및 투자 활성화

- › 무형자산 평가인프라 개선, IP금융 활성화,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

## ○ Giant & Globalization – 초대형IB 성장 및 해외진출 활성화

- › 기업신용공여 · 발행어음 · IMA 등 초대형IB 성장 지원, 해외진출 확대

## ○ ESG – 기업의 ESG 경영 촉진, 금융투자회사 ESG 경영 강화

- › ESG 평가 · 공시 · 회계 인프라 구축, ESG 금융상품 확대

## ○ Risk Management – 증권업 위험관리 강화

- › 채권 / 부동산PF / 해외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



감사합니다.